

2015 / 06 / 11 (THU)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1%대 하락세.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대형 IT주들이 대부분이 약세 보이며 지수하락 주도.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에서 2.8%로 하향조정한 것도 악재로 작용.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한글과컴퓨터,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이오테크닉스, NAVER, 서울반도체, 삼성SDS 약세.

종목별로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LNG 운반선용 가스압축기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삼성테크윈이 4.7%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LG디스플레이	162 억	삼성전자	-792 억
SK하이닉스	61 억	LG이노텍	-56 억
SK C&C	31 억	NHN엔터	-50 억
유비쿼스	25 억	삼성에스디에	-43 억
지트리비엔티	14 억	삼성SDI	-30 억
LG전자	12 억	컴투스	-19 억
NAVER	8 억	한국정보인증	-18 억
토비스	7 억	실리콘웍스	-16 억
바른손이앤에	6 억	서울반도체	-16 억
안랩	6 억	테라세미콘	-15 억
리노스	6 억	젬백스테크놀	-13 억
크루셜텍	6 억	파트론	-12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252 억	SK하이닉스	-221 억
LG이노텍	98 억	LG디스플레이	-168 억
다음카카오	87 억	엔씨소프트	-105 억
삼성테크윈	27 억	NAVER	-86 억
삼성전기	22 억	삼성에스디에	-84 억
웹젠	20 억	LG전자	-39 억
한글과컴퓨터	20 억	SK C&C	-37 억
NHN엔터	16 억	이오테크닉스	-26 억
아이월스	15 억	서울반도체	-21 억
테크윙	13 억	코나아이	-20 억
지트리비엔티	13 억	동진씨미캡	-17 억
아프리카TV	13 억	LS	-16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7019.84	-0.3%	-7.5%
DDR3 2Gb (Spot)	1.66 \$	-0.6%	-24.9%
NAND 64Gb (Spot)	2.61 \$	1.2%	7.9%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4.5%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8.82	-1.5%	-6.3%	-644 억	-232 억
KRX Semicon	1,968.86	-1.4%	4.9%	-769 억	15 억
(코) 반도체	1,009.28	-1.3%	26.6%	-104 억	-2 억
(코) IT H/W	417.18	-0.6%	19.7%	-164 억	-14 억
(코) IT S/W	2,255.05	-0.1%	12.8%	-35 억	158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62,000	-1.6%	-4.9%	-792 억	252 억
LG전자	52,800	-0.8%	-10.7%	12 억	-39 억
삼성SDI	113,000	0.4%	-2.6%	-30 억	-12 억
삼성테크윈	33,500	4.7%	40.5%	4 억	27 억
서울반도체	16,500	-3.2%	-18.3%	-16 억	-21 억
신도리코	66,600	-0.4%	-1.8%	-1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7,500	-1.0%	-0.5%	61 억	-221 억
이오테크닉스	103,000	-4.8%	-17.8%	-7 억	-26 억
윌익IPS	14,700	0.3%	5.4%	-1 억	8 억
리노공업	49,650	-1.3%	29.6%	-3 억	5 억
유진테크	17,650	-0.3%	9.3%	0 억	-1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1,500	-3.1%	-10.9%	-43 억	-84 억
SK C&C	262,500	-2.4%	23.0%	31 억	-37 억
포스코 ICT	4,975	-0.7%	-6.1%	-1 억	0 억
다우기술	17,400	-0.3%	45.6%	-1 억	-5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68,000	-3.7%	-20.2%	8 억	-86 억
다음카카오	116,000	-0.9%	-6.1%	-1 억	87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8,000	-0.7%	-16.8%	162 억	-168 억
에스에프에이	46,250	0.3%	-6.8%	3 억	-5 억
솔브레인	47,850	-0.3%	48.8%	0 억	1 억
덕산하이메탈	9,200	0.1%	-17.5%	0 억	0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7,300	3.1%	4.8%	-10 억	22 억
LG이노텍	99,800	0.0%	-11.3%	-56 억	98 억
파트론	9,770	2.2%	-16.9%	-12 억	0 억
루멘스	4,830	1.0%	-31.5%	-2 억	1 억
일진디스플레이	9,800	0.5%	43.7%	5 억	-1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1,500	-4.5%	-0.3%	-1 억	-105 억
컴투스	133,500	-5.3%	4.0%	-19 억	-9 억
NHN엔터테인먼트	56,300	-0.4%	-35.7%	-50 억	16 억
게임빌	97,200	-1.8%	-19.5%	0 억	-1 억
위메이드	40,500	-0.7%	7.1%	-2 억	-3 억
선데이토즈	18,450	2.5%	7.3%	2 억	12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0,900	0.4%	458.0%	5 억	3 억
한글과컴퓨터	18,800	5.3%	-6.9%	-8 억	20 억
코나아이	32,600	-5.0%	-3.3%	-9 억	-20 억
슈프리카	20,650	-1.4%	-18.9%	-7 억	2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35	1.4%	4.3%
MSCI Internet	160.71	1.1%	5.2%
MSCI Software	171.44	1.8%	4.8%
MSCI Semicon	220.15	1.3%	0.0%
MSCI IT Services	125.35	1.9%	6.5%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2.60	1.9%	4.1%
Facebook	82.16	1.8%	5.3%
Tencent	153.20	-1.2%	36.2%
Baidu	204.63	1.0%	-10.2%
Yahoo	42.06	1.0%	-16.7%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61	2.1%	0.3%
Oracle	43.94	2.0%	-2.3%
SAP	74.09	1.9%	6.4%
EMC	27.00	1.1%	-9.2%
Symantec	23.77	1.4%	-7.3%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8.88	1.1%	16.8%
Nokia	7.24	1.3%	-7.9%
Lenovo	11.20	-2.4%	9.8%
ZTE	21.95	2.3%	30.3%
HTC	76.3	1.3%	-46.3%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82	1.8%	-12.3%
Qualcomm	67.31	0.7%	-9.4%
Texas Instruments	54.19	2.4%	1.4%
Micron	25.19	0.0%	-28.0%
Toshiba	443	0.2%	-13.6%
Renesas	945	0.9%	14.8%
STMicro	8.42	1.4%	12.7%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8.92	2.0%	5.3%
HP	32.91	1.0%	-18.0%
Accenture	96.52	1.7%	8.1%
Fujitsu	700	-1.0%	8.6%
NTT Data	5,320	-0.9%	17.8%
CSC	67.48	1.6%	7.0%

Hardware

close	1D	YTD	
GE	27.63	1.1%	9.3%
Panasonic	1,714	1.0%	20.1%
SONY	3,653	1.3%	47.7%
Whirlpool	185.98	1.6%	-4.0%
Electrolux	258.70	2.1%	13.1%
Haier	21.65	-1.4%	17.3%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18,960	-2.2%	43.1%
KYOCERA	6,558	-1.0%	18.0%
Nidec	8,829	0.5%	12.5%
TDK	9,720	-0.8%	35.8%
Ibiden	2,159	-0.6%	20.7%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9	0.6%	-36.9%
Japan Display	521	0.8%	40.8%
AUO	4.89	3.2%	-3.9%
Innolux	16.60	2.8%	7.8%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테크윈	4.7%	국내수주

News & Issue

삼성테크윈, LNG 선박용 가스압축기 국산화 성공

삼성테크윈은 10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LNG 운반선용 가스압축기 4대와 주변장치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힘. LNG 선박용 HD(High-Duty) 압축기는 LNG 선적 시 운반선의 저장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기화가스(BOG-Boil-Off Gas)를 육상기지로 이송하는 장치.

선박 위에서의 극심한 진동, 영하 160도의 극저온 등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구동이 가능한 내부식성 소재 기술과 정밀 밀폐 기술 등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테크윈의 가스압축기 개발 성공으로 고가의 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산 선박의 가격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납기 단축, 적기 기술지원까지 가능해져 향후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삼성테크윈은 수십여년 간 가스터빈엔진 제작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용 가스압축기 개발에 나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자 설계·생산·시험 능력을 갖춘. 지난해 세계적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협회(DNV)와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가스압축기 관련 제품 인증도 취득.

삼성테크윈은 앞으로 지상용 및 조선해양용 가스압축기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글로벌 에너지 장비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할 계획.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수출입동향

News & Issue

오랜만에 반도체·휴대폰 쌍끌이, ICT 수출 4개월만에 증가

ICT 수출이 4개월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남.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0% 증가한 142.8억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68.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4.3억달러 흑자 달성. 휴대폰, 시스템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증가가 돋보임.

휴대폰은 27.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6% 증가. 갤럭시S6 등 국내 기업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부분품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침. 반도체도 51.2억달러로 4.3% 증가.

D램 단가 하락과 낸드플래시의 SSD 형태 수출 전환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감소(-3.9%)한 반면, 모바일용 반도체의 후공정 수출 물량 증가로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20% 이상 증가.

이밖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SSD 수출 급증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3월 27.2%, 4월 18.2%, 5월 9.4%). 다만, 디스플레이 패널은 해외생산 확대와 중소형 패널 단가하락으로 4.8% 감소한 22억 달러에 그침.

지역별로는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줄어든 반면, 중국 등 아시아권 수출은 증가.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은 5.8% 늘어난 74.5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 미국 수출은 3.5% 감소한 15.2억달러에 그침. ICT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휴대폰 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 5월에는 7.8억달러의 휴대폰이 수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6% 늘어난 수치. 반도체 수입도 9.5% 늘어난 28.9억달러.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전기	3.1%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전기, 신모델 스마트폰 효과 기대감에 상승세

하반기 최신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기가 강세. 이달부터 신모델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는 올해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 신모델의 70%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

6월부터 엡지(플렉서블 OLED) 생산능력이 기존대비 2배 증가돼 갤럭시S6 엡지의 적극적인 수요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삼성전자 하반기 프리미엄 신모델(갤럭시S6 엡지 플러스, 갤럭시노트5 등) 핵심부품 공급이 시작될 전망.

아울러 8~10월에 출시될 중국 5대 스마트 폰 업체(샤오미, 화웨이, 레노버 등)의 전략 신모델에 프리미엄 카메라모듈이 공급될 전망이어서 실적 전망 밝은 상태. 9~10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6S에도 핵심부품의 신규공급이 예상된다.

갤럭시S6 판매량을 보수적으로 가정(4,000만대)해도 삼성전기는 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LCD TV 유리기판 두께 더 얇아진다, 패널 업계는 원가절감

TV용 LCD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기판의 두께가 더 얇아짐. 올해부터 0.4mm 두께의 유리기판이 양산 라인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닝은 최근 두께가 0.4mm인 LCD 유리기판 '이글 XG 슬림'을 출시. 이 제품은 8세대(2,200×2,500mm) 이상 대형 라인용으로 공급. 유리기판 시장에서 코닝과 경쟁하는 일본 니폰일렉트릭글래스(NEG)는 최근 0.4mm 두께의 유리기판 OA-11의 샘플을 중국 CEC-판다에 공급. CEC-판다는 해당 유리기판을 신규 8세대 라인에 도입할 예정. 아사히글래스 역시 0.4mm 두께의 유리기판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짐.

LCD 유리기판의 두께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음. 2011년만 해도 7~8세대 LCD 라인에 도입되던 유리기판 두께는 0.7mm. 그러나 지난해 한국과 대만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을 중심으로 0.5mm 제품으로 전환이 이뤄짐.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0.5mm 두께의 유리기판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사용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림.

유리기판의 두께가 얇아지면 패널 업체 입장에선 이익이 확대됨.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최종 완성품의 두께, 무게 축소. 투과율도 향상돼 소비전력을 낮출 수 있어 무엇보다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 패널 업체들은 LCD 셀 작업을 끝낸 이후 유리기판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식각(etching) 작업을 수행. 0.7mm 유리기판을 사용했다면 화학적, 물리적 식각 공정을 통해 두께를 0.5mm까지 줄였던 것. 그러나 0.5mm 이하 두께의 기판을 사용한다면 식각 공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 공정 하나가 줄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는 곧 원가 절감 효과로 이어짐.

최근 0.5mm 유리기판 도입으로 원가를 크게 절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중으로 0.4mm 유리기판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 유리기판 공급 업체는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이미 4K 이상 커브드 LCD 패널 생산을 위해 0.4mm 유리기판을 월 4,000~5,000장씩 공급받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보다 얇은 유리기판을 도입할 경우 패널 업체들은 생산 원가를 대폭 축소할 수 있지만 LCD 기판 식각 장비 및 소재 업체들의 매출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고 언급.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인터넷전문은행 IT구축, 다양한 해법 가능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IT시스템 구축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제시됨. 최근 금융위원회가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규제 완화로 나선 가운데 전산자원에 대한 위탁규정도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 구축에 걸림돌로 거론되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조짐을 보임.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온 IT서비스업체들은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안할 태세.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통해 정보처리 시스템의 외부 위탁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재 중소형 은행, 증권사 등이 외부 전문회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코스콤 등에 정보처리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전산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보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새로 출범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은행업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의 틀이 짜여질 것으로 보여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금융당국이 정보처리 시스템의 외부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구축 시 기업금융 부분을 제외하면 300억원 전후의 시스템 초기투자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스템 외부위탁이 허용되면 증권사 IT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코스콤의 '파워베이즈'와 같이 IT시스템의 아웃소싱이 가능.

금융당국도 "정보처리 외부위탁 절차 간소화에 따라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시에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 관련 초기 비용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는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 은행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독자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큼. 이럴 경우 여수신 등 코어뱅킹 시스템과 금융 채널시스템 등 과도한 초기 금융 시스템 투자비용과 신규 서비스 개발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 C&C 전략사업본부장 이기열 전무는 9일 중로구 서린빌딩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솔루션 사업전략' 브리핑을 통해 "단순한 SI접근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어렵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끌 수 있는 맞춤형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고려하면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와 차별화된 수익모델 확보가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시스템 측면에선 단계별 서비스 확장 및 통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SK C&C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뱅킹 시스템 개발 방법론으로 기존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비용보다 20%~30%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전용시스템 개발, 전용 시스템 소스코드 사용 허용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모델, 시스템 공동 개발을 통한 투자 리스크 해소, 사용량 기반의 저렴한 IT서비스 이용 모델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

이 전무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각 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협력모델을 고르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참여할 경우 직접 구축을, 소규모 금융사나 비 금융사의 경우 라이선스 모델과 ASP 모델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서 ASP모델이 초기에 정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탁규정 개정안에는 ASP 서비스 자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 비용절감에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금융법에서 아직 제한하고 있어 이를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

中 ZTE, 세계 최초 UHD 스마트폰 출시할까

중국 스마트폰 업체 ZTE가 세계 최초로 UHD(4K, 초고해상도)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음.

9일(현지시간) 미국 폰아레나는 최근 중국 내에서는 ZTE의 신형 스마트폰 'ZTE 스타3'에 5.5인치 UHD(3,840x2,160)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전함.

전력 소비가 많이 드는 것을 막고 디스플레이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크리스탈 구조물과 함께 TFT 패널을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 해당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 BOE가 제작하며 두께는 0.5mm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짐.

앞서 지난 4월 샤프는 806PPI를 자랑하는 5.5인치 UHD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를 공개. 하지만 샤프는 2016년까지 대량 양산은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에 QHD(2560x1440) 화면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FHD(1,920X1,080) 화면과의 화질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실정. 하지만 ZTE가 선두주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UHD 스마트폰을 출시할 가능성도 존재.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1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